

# 서적 중개인의 역할과 소설 발달에 관한 연구

## 시론(試論)

李民熙\*

### I. 들어가며

그동안 학계에서는 소설의 형성 및 발달 문제와 관련해 전대 문학갈래를 계승·발전시킨 서사문학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와 출판·인쇄·유통과 독자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가 그 주를 이루어 왔다. 전자의 경우, 서사시와 설화를 계승하면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가 시작될 때 소설이 생겨난 사실을 전대 문학갈래와의 관계 속에서 살핀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반면, 소설 발달과 사회적 배경의 관계에 주목하여, 목판본(방각본) 소설의 등장과 독자층의 확대에 힘입어 소설이 그 시대의 중심적 문학갈래로 성장한 상황과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또 다른 축을 이루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작가·독자·전달자의 관계에서 소설의 유통 시스템을 조명하거나 세책(賈冊) 고소설에 관해 천착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설의 발달 원인을 작품 외적인 요소, 즉 소설을 산출한 시대 및 사회에 주목하되, 그 중에서도 소설의 생산·유통·소비의 문제와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연구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sup>1)</sup>

---

\* 바르사바대학교 교수

1)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3.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그러나 아직까지 소설 유통의 실질적인 담당자였던 ‘서적 중개인’에 주목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비록 서적 중개인의 존재 사실을 소개하거나 그들의 활동상을 부분적으로 다룬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sup>2)</sup> 서적 중개인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었다. 이는 자료 취급의 한계로 말미암아 활발히 연구되지 못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학계에서 소홀히 취급해 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서적 중개인들은 독자의 요구(주문)에 따라 원하는 서적과 소설을 구해주고 이득을 취하던 개인 또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서점 또는 세책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지역 간 교류 또한 활발하지 못했던 시대에 서적 공급 및 수요 창출에 일익을 감당했다. 이들은 엄연히 사회 내부에서 출판·유통문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며 작가·독자·출판업자를 잇는 ‘제 4의 문학담당층’ 노릇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서적 중개인들의 성격과 역할에 주목하는 한편, 이들이 소설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시론(試論)을 펴고자 한다. 여기서 시론이라 함은 서적 중개인에 대한 국내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의 사례까지 가져와 대비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서적 중개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시기, 곧 근대로 들어서기 이전 시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던 이들이었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서적 중개인들의 활동과 그 사회적 역할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서적 중개인들이 소설 발달에 미친 영향관계를 그 나름대로 고찰하는

전상욱, 세책본 고소설 연구의 성과와 반성, 연세대학교 무악고소설연구회 월례발표회, 2000년, 8월.

조동일,『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이운석·大谷森繁·정명기 편저,『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등.

2)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동방학지』 11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70.

박상균, 개화기 책거간고(冊居間攷),『한국학연구』 제 2집, 국학연구소, 1977.

백운관·부길만,『한국출판문화변천사 - 도서유통의 성립과 발전』, 타래, 1992.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이중연,『‘책’의 운명: 조선·일제 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세종서적, 2000.

유희준, 정창권 풀이씀,『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작업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사례를 들어 실상을 파악하고 서적중개인의 활동이 두드러진 러시아의 경우를 가져와 비교하기로 한다. 아울러 다른 주변 나라의 사례도 일부 가져와 서적 중개인의 역할이 갖는 보편적 특성을 확인하고 문학사회학적 관점에서 소설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 II. 서적 중개인이란?

‘서적 중개인’이란 용어는 학계에서 아직 공식화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어 먼저 용어와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최근이라 할 1960년대 말, 이서구(李瑞求)가 쓴 「책방세시기(冊房歲時記)」에 ‘책 거간(冊居間)’이란 말이 등장한다.<sup>3)</sup> 이 용어를 사용한 그의 증언에 의하면 구한말에 ‘책 거간꾼’이라는 단어는 이미 민간에서 널리 회자되던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록 ‘책 거간’이란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적어도 19세기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것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거간(居間)이란, 흔히 경제 용어로서 “어느 특정인에게 전속되지 않은 채 타인의 매매 및 기타 모든 거래를 매개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sup>4)</sup>을 의미한다. 즉, 상업적 목적으로 중간에서 거래를 담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중간 상인을 뜻한다. 그러므로 책 거간이라 하면 간단히 말해 ‘책을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던 사람’을 뜻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책 거간을 ‘서쾌(書僧)’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동욱은 그의 논문에서 서쾌라는 명칭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sup>5)</sup> 즉, 문자 그대로 책을 거래하던 중개인, 거간꾼을 일컫는 말이었다. 사실 ‘서쾌’란 용어는 중국 당

3) 이서구, 冊房歲時記, 『新東亞』 40, 1968년 5월호, 252면.

4) ‘거간(居間)’, 『경제학대사전』, 박영사, 1965, 55면.

5) ‘서쾌’를 국내 학계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김동욱이다.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11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70, 101면.

(唐)나라 때 이작(李綽)이 편찬한 『상서고실(尙書故實)』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sup>6)</sup> 이미 당나라 때에 서적 중개업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손영'이라는 서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서쾌인 손영(孫盈)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널리 알려졌었다. 손영의 부친은 중용(仲容)인데, 그 또한 그림을 잘 감정하고 품목(品目)에도 뛰어났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에서 보물처럼 여기는 많은 책은 그의 손을 거쳤다.<sup>7)</sup>

한편,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보이는 국내 문헌으로는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이 쓴 『미암일기(眉巖日記)』(1567~1577)를 들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기록된 이 책에서 미암은 '서쾌'가 아닌 '서책쾌(書冊倅)', 또는 '책쾌(冊倅)'라고 부르고 있다.<sup>8)</sup> 이에 비해,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에서는 '서쾌'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한 서점에 들어갔다가 주인이 매매한 문서를 정리하기에 매우 불주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떤가? 서쾌가 책 한 권을 가지고 두어 달 씩이나 사대부 집을 두루 돌아다녀도 제대로 팔리지 않는 형편이 아닌가?<sup>9)</sup>

위 글에서 '두루 돌아다니며 책을 파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서적 외판원과 같은 노릇을 하던 '서적 중개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사대부 집을 다니며 책을 팔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서적 중개인을 박제가는 '서쾌'라고 불렀다.

요즘에는 한자어의 뜻을 풀어 쓴 '책 행상인'이나 '책 장수', '서적 중개상' 등을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의미는 동일하나

6) 『中文大辭典』 4, 中華學術院刊, 1973, 1459면.

7) “京師有書倅孫盈者，名甚著。盈父曰仲容，亦鑒善畫精於品目，豪家所寶，多經其手。”

8) 미암 유희춘의 『미암일기』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9) 박제가, 홍희유·강석준 역, 古董書畫, 『북학의』, 여강출판사, 1991, 122면.

“嘗入一書肆，見其主人，疲於賣買文薄，暫時無隙。我國之書倅，挾一書遍歷士大夫家，往往數月而不售。”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또한 각 나라별로 자국어로 부르는 용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본고에서는 이를 통칭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고는 독자의 요구(주문)에 따라 원하는 서적과 소설을 구해주고 이득을 취하던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서적 중개인’을 사용하고자 한다. 개별 국가별로 서적 중개인을 지칭할 때는 그 나라마다 고유하게 부르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책 거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는 점과 이의 한자어인 ‘서쾌(書儻)’를 국내에서 사용한 예가 있기에 ‘서쾌’를 서적 중개인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적 중개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영리를 목적으로 책을 매매하는 직업적 중개인이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왕래하며 서적을 위주로 유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고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사(書肆), 곧 서점을 내고 책을 파는 서점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귀중한 서적을 발굴해 서점에 다 팔거나 학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할 것이다. 이런 서적 중개인들이 필사본 시대부터 활동한 것이 사실이나, 인쇄업이 발달하고 출판 및 유통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그 역할이 증가하자 적극적인 구실을 하게 되었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서적 중개인들이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서적 중개인을 한국에서는 ‘서쾌(書儻)’, 중국에서는 ‘서반(序班)’,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오페나’(단수형),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각기 자국어로 서적 중개인을 일컫는 말들이 존재했다. 서적 중개인은 소설뿐

10) 최근까지 활동한 서적 중개상에 관한 구체적 자료로 김동욱이 쓴 「한상윤 노인(韓相允老人)」, 『도서(圖書)』(제5호, 1963, 을유문화사, 90~94면)과 김약슬(金約瑟)이 쓴 「송신용 노인(宋申用老人)」, 『도서(圖書)』(제9호, 1965, 을유문화사, 53~62면)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윤제의 「고서왕래(古書往來)」, 『현대문학』(3월호~9월호, 1963)에서 저자가 고서를 구매하게 된 과정과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집을 드나들던 ‘고서상인(古書商人)’이 있었다고 적고 있어 그 당시에도 서적 중개상의 활동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만 아니라 각종 서적을 외국에서 자국 내로 수입하는가 하면, 국내 각지를 돌아다니며 매매 행위를 했다. 이런 현상이 나라마다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났다 하겠으나, 구체적인 양상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제 구체적으로 서적 중개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살펴보기로 하자.

### III. 나라별 사례 분석

#### 1. 한국의 서쾌(書儈) 및 동양의 서적 중개인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서 활동한 서적 중개인을 흔히 ‘서쾌(書儈)’ 또는 ‘(서)책쾌(書冊儈)’라고 했다. 문자 그대로 책을 거래하던 중개인, 거간꾼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서쾌가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를 『미암일기(眉巖日記)』<sup>11)</sup>(1567~1577)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은 1574년 당시 약 3500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약 10년 동안 친필로 쓴 『미암일기』에 보면, 필요한 책이 있을 때 직접 베껴 만들거나 누구를 시켜 만들기도 했고, 지방관으로부터 책을 기증받는가 하면, 선물로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기도 했으며, 중국 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외국 서적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했다.<sup>12)</sup> 그런데 또 다른 서적 구입 방법으로 그가 “서울에 사는 책장수로부터 물건을 주고 서적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밝혀 놓기도 했다. 더욱이 책장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대해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놓았다. ‘박의석’과 ‘송희정’이라는 책장수들이 바로 그들이다. 필요한 부분만을 예로 들어 본다.

11)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친필 일기. 원래 14책이었으나 실본으로 11책이 남아 있으며, 일기의 일부는 그의 문집인 『미암집(眉巖集)』에 초록되어 있다. 1567년 10월 1일부터 1577년 5월 13일 그가 죽기 전 일까지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다.

12) 유희춘, 정창권 풀어 씀,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미암일기 : 1567~1577)』, 사계절, 2003, 97~98면.

- (1) 들으니 경성 의금부의 북쪽에 이름이 박의석이란 책장수가 있는데 모든 곳의 서책을 반가(半價)로 사서 전가(全價)로 판다고 한다.<sup>13)</sup>
- (2) 책장수 송희정이 찾아와 인사를 하고 『참동계』·『황화집』·『소문쇄록』·『두시』 등을 가져오기로 약속하고 갔다.<sup>14)</sup>

박의석(朴義碩)은 의금부 북쪽에 거주하는 이로서 모든 곳의 서책을 반가(半價)로 사서 전가(全價)로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 한편, 송희정(宋希精)은 거주지는 불분명하나 자주 미암을 찾아와 여러 가지 책을 팔았다고 했다. 이들을 ‘서책쾌(書冊僧)’ 또는 ‘책쾌(冊僧)’라고 불렀다. 미암은 이들이 서울의 대갓집에서 가난한 선비 집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책을 팔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소상히 알고 있다고까지 했다.<sup>15)</sup> 이로 보건대, 책을 매매하는 서쾌가 임진왜란 이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서쾌의 활동은 서사(書肆), 즉 서점이 등장해 정착되기 이전에 서점의 역할을 대신해 직접 책을 가지고 다니며 판매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에 서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기록으로는 『고사촬요(攷事撮要)』 권말의 간기(刊記)에 “1576년(선조 9, 만력 4) 7월, 수표교 아래 북쪽 자리 수문 입구에 있는 하한수(河漢水)의 가각판(家刻版)을 사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라.”고 새겨놓은 것을 들 수 있다.<sup>16)</sup> 집주소를 밝혀 놓고 책에 선전하여 찾아오도록 한 것으로 보아 출판을 겸해 서점까지 하던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듯 초기 형태의 서점이 생겨난 후로 서점이 곧바로 정상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숙종, 영조 때도 서점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서점을 차려 놓으면 세도를 부리는 양반집 사람들이 제멋대로 책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어 책 거간꾼들이 책을 들고 양반집을 다니며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sup>17)</sup> 다시 말해, 서점이

13) 『미암일기(眉巖日記)』, “聞京中義禁府北, 有冊僧名朴義碩者。凡諸處書冊, 無不半價買而全價賣云。”(1567.10.18.條.)

14) 위의 책, “書冊僧宋希精來謁, 約參同契·皇華集·謾聞瑣錄·杜詩等而去。”(1568.3.14.條.)

15) 정창권 풀어 씀, 앞의 책, 102면.

16) 안춘근, 『한국서지의 전개과정』, 범우사, 1994, 79면.

생겨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체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을 또한 만만치 않았다. 자유롭게 서적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서사(書肆) 설립 논의가 여러 차례 전개되었다.<sup>18)</sup> 정상기(鄭尙驥)의 글에서도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서울에다 교서관(校書館)을 설치하여 주자(鑄字)를 많이 만들었고, 삼남 및 서북도의 큰 도시, 큰 고을에도 또한 목각(木刻)한 책판(冊版)이 많아서 서적을 인출하였다. 사대부 및 중서배(中庶輩)로서 글을 좋아하는 자는 기이한 글과 이상한 서적을 많이 중국에서 사왔으므로, 지금은 서책이 예전과 비교하면 제법 많아졌다..... 지금은 조정에서 이, 삼십 간 디락집을 종이전(紙塵) 옆에다 특설하여 서사(書肆)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sup>19)</sup>

정상기의 생몰연대가 1678~1752년이므로 위의 내용은 대개 18세기 전반의 상황일 것이다. 서점에 해당하는 서사(書肆)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지만, 서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서적의 수입이 18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리고 사대부나 중인들 중에는 직접 중국까지 가서 ‘기이한 글과 이상한 서적’을 사 가지고 왔다고 한다. 여기서 ‘기이한 글’이나 ‘이상한 서적’이란 당시 양반들 사이에서 천하게 여겨지던 소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설을 구하기 위해 중국까지 가서 사왔다는 것은 소설이 당시 그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방증이 된다.

이처럼 서적이 급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책을 대여해 주는 세책(貰冊)이나 서사(書肆)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독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서쾌, 거기마다 강담사(講談師), 전기수(傳奇叟) 등까지도 일종의 도서

17) 안춘근, 위의 책, 81면.

18) 『明宗實錄』卷十一, 六月 五日 甲寅條. ; 柳本藝, 『漢京識略』卷二, 市塵條 “中朝十三年, 依中例, 設書肆于城中, 以昭格署鑑器及廢寺鐘, 不拘公私, 鑄字印書甚盛典, 而城內但無大書肆.”

19) 정상기(鄭尙驥), 이익성(李翼成) 역, 廣書籍, 『農圃問答』, 한길사, 1992, 162~163면  
“京中設校書館, 多作鑄字活字, 三南及西北之通都大邑, 亦多木刻之板, 以印書冊. 士大夫及中庶輩之好文者, 多賈奇文異書於中國以來, 故即今書冊, 比古頗多.....今當自朝家, 特設數三十間樓屋於紙塵之傍, 以爲書肆.”

보급의 기능을 감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점이나 세책가와 같은 판매업자가 생겨나게 된 것은 18세기의 일이었다.<sup>20)</sup> 이 이후로 서래의 활동 및 역할은 더욱 활기를 띠고 나타났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서적 수입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내에서의 출판이 활기를 띠는 데다 장서 보유에 대한 사대부들의 관심이 증대된 결과, 서래와 같은 전문적인 서적 중개인이 더욱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서래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로는 ‘조신선(曹神仙)’을 들 수 있다. 조신선에 관해서는 정약용(1762~1836)이 쓴 「조신선전(曹神仙傳)」,<sup>21)</sup> 조수삼(1762~1849)의 「죽서조생전(鬻書曹生傳)」,<sup>22)</sup> 조희룡(1789~1866)의 「조신선전(曹神仙傳)」,<sup>23)</sup> 그리고 후대에 장지연이 쓴 「조생(曹生)」<sup>24)</sup>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25)</sup> 아래 글은 조신선에 관한 전(傳)의 일부이다.

1) 조신선(曹神仙)이라는 자는 책을 파는 아쾌(牙僧)이다. …모든 구류(九流)·백가(百家)의 서책에 대해 문목(門目)과 의례(義例)를 모르는 것이 없어, 술술 이야기하는 품이 마치 박아군자(博雅君子)와 같았다. 그러나 욕심이 많아 고아나 과부의 집에 소장되어 있는 서책을 쌍값에 시들여 팔 때에는 배로 받았다. 그러므로 책을 판 사람들이 모두 언짢게 생각하였다.<sup>26)</sup>

20) 大谷森繁, 朝鮮後記의 貢冊 再論, 이윤석·大谷森繁·정명기 편저,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22~33면.

21) 丁若鏞, 曹神仙傳, 『국역 다산 시문집』 7, 민족문화추진회, 1985, 279~280면.

22) 趙秀三, 鬱書曹生傳, 『秋齋集』 卷八.

23) 趙熙龍, 曹神仙傳, 『壺山外記』 : 『閻巷文學叢書』 9, 驪江出版社, 1991.

24) 張志淵, 曹生, 『逸士遺事』, 汛東書館, 大正 11年.

25)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 내 편의 작품을 가지고 「조신선전」이 주로 많은 ‘전(傳)’ 문학 중에서도 특히 신선(神仙)을 입전의 대상으로 삼은 ‘신선전(神仙傳)’의 일부로 평가하거나 조신선에 대한 작가들의 관점과 인물평, 구성 및 서술태도 등을 비교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최창록, 『한국 신선소설 연구』, 형설출판사, 1989.

박희병, 『한국 고전인물 전 연구』, 한길사, 1992.

김홍식, 정약용의 ‘조신선전’연구, 이상의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719~737면.

최준하, 다산 정약용의 ‘조신선전’ 비교연구, 『어문연구』 제25집, 어문연구회, 1994 등.

26) 丁若鏞, 曹神仙傳, 『국역 다산시문집』 7, 민족문화추진회, 1985, 279~280면.

- 2) 조신선은 …늘 서울을 왕래하며 책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나 역시 박 도량의 서사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sup>27)</sup>

1)은 서쾌 조신선이 서책 거래로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박의석처럼 반값에 사들여 배나 되는 값으로 팔아 상당한 이득을 남겼으므로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못했다고 했다. 서쾌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위치가 어떠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런데 조신선에 관한 네 편의 전(傳)에는 공통적으로 조신선의 남다른 외모와 행적이 부각되어 있다. 전(傳)마다 조신선을 직접 만나 본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이들과 직접 왕래한 세월만 해도 50년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들이 그를 처음 만날 당시 그의 나이가 이미 40, 50세가 넘었었는데, 그 후 50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고까지 했다. 그렇다면 그는 백 살이 넘어서까지 책 거간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전설적 인물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처음이나 세월이 흐른 뒤 만났을 때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를 사람들이 조 신선(神仙)으로 부르게 된 것이었다. “귀천과 현우에 관계없이 모두” 그를 알아봤다는 것으로 보아<sup>28)</sup>, 그의 활동 범위는 상당히 넓었으며 평생 수많은 문사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문적으로 서적 중개인 노릇을 해 왔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조신선과 같은 서적 중개인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입전될 만큼, 그가 살았던 18세기말~19세기 초에는 적지 않은 수의 서적 중개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행적이 일반인과 구별되는 점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 사회적 폐단 또한 제기되고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다.

“曹神仙者，賣書之牙僧也。…凡九流百家之書，其門目義例，無不領略，纏纏譚論，如博雅君子，而性多慾，凡孤兒寡妻之家所藏書帙，輒以輕賈取之，及其賣之也，倍讐焉，故賣書者多短之。”

27) 趙熙龍, 曹神仙傳, 『壺山外記』: 『閻巷文學叢書』9, 驪江出版社, 1991, 60면.

“曹神仙…常往來洛下，以鬻書自業…余亦見之于朴道亮書肆。”

28) 유재진,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향견문록』, 민음사, 1997, 468~469면.

한편 2)에서 언급된 박도량의 ‘書肆’란 서점을 지칭하는 말이다. 조신선은 서쾌였으므로, 아마도 서적의 거래, 곧 이런 서점에서 서적을 공급받아 구입자들에게 팔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자료의 출처인 『호산외기(壺山外記)』는 1844년에 썼으므로, 19세기에 이미 상당수의 서쾌들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폐단까지 생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서쾌는 서점을 드나들면서 필요한 서적을 구입해 그 서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해 주던 일을 했던 만큼 서점 또는 세책가와 적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활동했던 서적 중개인으로 박의석(朴義碩)과 송희정(宋希精)에 대해 언급한 바 있거니와, 조신선 외에 또 다른 서적 중개인들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조실록』 28년(1752) 4월 18·19일자에는 광평대군(廣平大君)의 후손으로 가평에서 거주하던 몰락양반 ‘이양제(李亮濟)’를 영조가 친히 심문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심문 과정에서 이양제의 형제 및 그와 접촉하던 주변 인물들이 모두 등장하고, 그들의 진술을 통해 당대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이인석(李寅錫)과 박섬(朴湜)이라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약계책방(藥契冊房)’이란 곳이 서소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약계책방을 운영하던 이인석은 녹사(錄事)<sup>29)</sup>였고, 박섬은 주부(主簿)<sup>30)</sup> 출신으로 둘 다 중인 신분이었다. 그런데 이 ‘약계책방’은 ‘약계’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약방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부방에 해당하는 서재 기능, 그리고 책을 판매하는 서점의 기능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양제(李亮濟)이란 이가 이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 『사략(史略)』을 가르치는가 하면, 『대명률(大明律)』을 사 가지고 했다고 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1)</sup> 또한 그 책방에 『열국지(列國志)』와

29) 의정부, 중추원에 딸린 아전(衙前).

30) 의원.

31) 『영조 실록』 28년 4월 19일(庚戌)조.

박 섬이 궁초하기를, “신은 이인석과 함께 책방을 내고 있는데, 이양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략(史略)』 초권(初卷)을 가르친다고 간 뒤에 다시 와서 『대명률(大明律)』을 사 가지고 갔습니다.”하였다.

한글 서적도 있었다<sup>32)</sup>고 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약계책방이 이미 서재 기능보다 서점 기능이 더 강했음을 짐작케 해준다. 더욱이 이곳을 종종 드나들던 이양제는 이곳에서 책을 구입하고 진사 '강행정(姜行鼎)'에게 책을 팔기도 했다<sup>33)</sup>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야말로 책을 매매하던 서쾌였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우리는 서점이 중인계층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던 점과 몰락양반들이 서쾌로 활동하면서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서적 유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sup>34)</sup> 아직 약계책방이 온전한 전문적 서점의 모습을 갖추기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쾌와 연계되어 서적 유통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배경도(裊景度) 또한 서적 중개인으로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그는 『영조실록』 45년(1771년) 5월 26일자에서, 소위 '명기집략 사건'에 연루되어 비참한 죄후를 맞이한 인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명기집략 사건'<sup>35)</sup>이란, 영조 말년에 조선의 태조와 인조를 모욕하는 내용이 청나라 주린(朱璘)의 『명기집략(明紀輯略)』이란 책에 일부 실려 있었는데 이 책을 모두 불태우고 이를 유통시킨 서적 중개인들과 책을 구입한 장본인들 및 그 가족들 까지 잡아들여 죽이거나 유배를 보낸 사건을 의미한다. 영조는 결국 사대부

32) 『영조 실록』 28년 4월 18일(己酉)조.

이양제가 공초하기를, “금월 15, 16일간에 초정의 언찰을 받았는데, 그 아들 이경명이 가지고 왔기에 서소문 안 박주부(朴主簿) 약계 책방 바깥채에서 만나 보았습니다. 신은 포도대장 집에 두 번 투서한 뒤에 가평으로 내려가려 했고, 요사스런 술법은 『열국지』와 언문 책 속에 있었습니다.”하였다.

33) 『英祖實錄』 28년 4월 18일(己酉)조.

강행정을 심문했는데, 강행정은 곧 진사다. …… 이경명이 공초하기를, “신은 과연 이양제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7.8일 전에 서소문 안의 안가(安哥)가 이양제와 길에서 서로 만나 문자로 수작하였고, 강 진사 집에는 언젠가 책을 팔려고 이양제와 한 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34) 이중연, 『‘책’의 운명』, 혜안, 2001, 356~357면.

35) 조선 태조가 이인임(李仁任)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주린(朱璘)의 『명기집략(明紀輯略)』이 수입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 10여 명이 사형에 처해졌으며, 영조는 추후 중국에서 신서를 사오지 못하게 했다.

양반인 이희천(李羲天, 1738~1771)<sup>36)</sup>과 서적 중개인 배경도(裴景度)의 목을 벤 후, 청파교에서 효시하여 사흘 간 목을 달아두고, 그 처자들은 모두 흑산도로 보내 영영 관노비로 삼으라고 명했다.

과연 이희천(李羲天)과 서적 중개인 배경도(裴景度) 등을 찾아냈으니 …… 이것은 망측한 책을 서로 사고 판 것이니, …… 이희천과 서적 중개인 배경도는 장전(帳殿)에서 세 차례 돌며 회시(回示)한 뒤에 훈련대장으로 하여금 청파교(青坡橋)에서 효시(梟示)하게 하여 강변에 삼일 동안 머리를 달아 놓도록 하고, 그들의 처자는 흑산도에다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하게 하였으며<sup>37)</sup>

이렇듯 참혹한 형벌의 원인이란 단순히 국가에서 금지하는 서책을 소지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자진해서 책을 반납한 이들은 영의정을 비롯한 3정승과 판서가 포함된 무려 75명에 이르렀다. 당시 이들이 바친 책이름도 다양해서 10가지가 넘었다.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저자의 문제의 책이 당시 내로라하는 조선 사대부의 서가마다 대부분 모두 꽂혀 있었던 셈이다. 같은 책도 완질과 축약본이 있었고, 명칭 또한 다양하게 유통되었던 사정까지 알 수 있다. 『영조실록』에는 이 사건을 전후해 사형당한 사람들이 “10명에 달 했다.”고 했으나, 『이향견문록』에는 “나라 안의 책장수가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하여 서적 중개인의 씨마저 없어질 만큼 피해 정도가 심각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당시 조선의 서적 유통시장의 규모와 서쾌라고 불리던 서적 중개인들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켜 놓았다. 당시 서책의 활발한 유통에는 서적 중개인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 서적 중개인들은 회귀본과 신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여 고객의 요청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역량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실명이 거론된 서적 중개인은 ‘배경도’ 한 사람 뿐이지만, 그 외에도 “서적 중개인이 도성 가운데 가득했다”거나 서적을 유통시킨 역관과 책장수가 붙잡히고 난

36) 이희천은 당대 이름 높던 문인 이윤영(李胤英, 1714~1759)의 아들로 명망 높은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37) 『英祖實錄』, 47년 5월 26일(丙寅)조.

“果得李羲天及冊僧裴景度等…此則罔測之書，互相買賣…李羲天及冊僧裴景度，帳殿回示三匝後，令訓將，青坡橋梟示，江邊懸首三日，其妻孥黑山島永屬官奴婢。”

후 “죽게 된 자들이 100명에 가까웠다”는 내용, 그리고 “여덟 명의 서적 중 개인이 흑산도의 종이 되게 했다”는 기록 등<sup>38)</sup>에 의거할 때, 영조 대에 이미 많은 수의 서적 중개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정조 때에는 진사 김낙도(金樂道)가 부유한 관리들에게 “비싼 값으로 글을 팔아” 지내다가 규탄을 받아 귀양을 가기도 했다.<sup>39)</sup>

이 밖에도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에는 ‘홍윤수(洪胤琇)’란 서적 중개인이 소개되고 있다.<sup>40)</sup> 홍윤수는 “붓 가게나 책점이 있는 거리를 왕래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생계를 꾸렸다.”고 할 정도로 무척이나 궁핍한 삶을 살았다.<sup>41)</sup> 앞서 언급한 ‘조신선’이 자신이 거래하는 책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 양반 지식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즉, 평민에 가까운 신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홍윤수는 독서를 즐기던 신분의 사람이었으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래 노릇을 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즉, 독서를 좋아했으며, 『이향견문록』을 쓴 유재건(劉在建, 1793~1880)의 조부인 유상우(劉相祐)로부터 “학문에 힘쓰라”는 격려까지 받았던 사실<sup>42)</sup>로 미루어 볼 때, 몰락양반이거나 중인 지식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재건 집안이 중인 신분이었으며 홍윤수가 유상우의 고종사촌 사이였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겠다. 더욱이 홍윤수가 매매하던 경서(經書)에서 값비싼 보물 칼을 발견했지만 사심 없이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 정작 본인은 입

38) 『英祖實錄』, 47년 5월 26일(丙寅)조.

“책장수가 도성(都城) 가운데 가득하며 사야 하는 것은 오직 『봉주강감(鳳洲綱鑑)』뿐인데, 그 가운데 유독 주린(朱麟)의 『명기집략』을 산 자에 대해서는 나라의 형률을 빨리 시행해 책장수 8인은 흑산도의 종으로 삼게 하고”

39) 『正祖實錄』, 1777년 4월 기미(己未)조.

40) 유재건(劉在建),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里鄉見聞錄』, 민음사, 1997, 153면.

41) “홍윤수 공은 자가 계일(啓一)로, 집이 가난했으나 독서를 좋아하였다. 붓 가게나 책점이 있는 거리를 왕래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생계를 꾸려, 처자식은 항상 배고픈 기색이 있었다.(洪公胤琇, 字啓一。家貧, 好讀書, 往來於筆肆冊市之間, 僅爲糊口計, 而妻孥恒有飢色。)”

42) “그는 나(=유재건, 인용자 주)의 할아버지 이약현(以約軒)(=유상우의 호, 인용자 주) 공의 고종사촌이다. 할아버지는 일찍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 학문에 힘쓰라고 한 적이 있었다.(公即王考以約軒公表從也。嘗有書, 勉其學問。)”

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되는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아 큰 이득을 취하려던 속물 장사꾼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서쾌의 등장은 소설에 대한 기준의 부정적 시각이 점차 변화하는 가운데 가능해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적극 활용하고자 모색한 유통질서의 결과였다. 소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모하는 가운데, 서쾌의 존재는 시장경제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 서책 유통(書冊 流通)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서쾌는 조직체계도 비교적 잘 짜여 있어 전국적으로 산재한 향교, 서당, 양반 집 등을 행상하면서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담은 신서류(新書類)를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방의 부녀자들의 독서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서쾌는 중국 서적을 수입 판매하는 일 외에도 몰락한 양반들로부터 대대로 간직되어 내려오던 서책을 사들여 놓고 새롭게 떠오르는 양반 계급에게 고서를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동시에 그것들을 알선 판매까지 하였다.<sup>43)</sup>

물론 중인 출신의 역관들도 중요한 서적 구입 통로였다. 역관은 단지 통역만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 외교관이기도 했다. 청국을 이단시한 나머지 실무를 통역에게 맡기려던 사대부들의 편견과 언어적 장애가 큰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역관들은 사행 중에 서책을 구입해 오는 것이 당연했으며, 심지어 금서들의 유입도 대부분 이들이 감당했다. 서쾌는 이들 역관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역관들은 외래문물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서쾌나 세책가들보다 선진적이고 개화된 사상을 가지고 중국의 서적 유통 방식을 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하 간에 18세기 이후 국내 서적의 유통을 맡은 것은 역관(譯官)과 서적 중개상에 해당하는 서쾌(書儈)라 할 수 있다. 역관이 사대부와 함께 중국에서의 수입을 담당한 주체였다면, 서쾌는 순수하게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둘의 관계는 사뭇 밀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쾌에 의해 서적들은 전국적 유통망을 갖출 수 있었다. 이에 비해 18세기에 출현한 세책(貴冊)기는 19세기에 이르러 더욱 발달하였지만, 서울에만

43)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11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70, 101면

있었다. 주로 필사본을 취급한 세책가의 모습이 19세기 말 조선을 다녀간 외국인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 5) 서적(書籍)은 결코 상인(商人)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책가(貲冊家)’도 상당히 있어, 그 곳에는 대중의 서적, 즉 인본(印本)과 사본(寫本)의 대개는 한글로 쓰인, 이야기책, 노래책이 구비되어 있는 바, 이 집 책은 서점의 매품(賣品)보다도 정성스럽게 되어 있어 종이도 상질(上質)로 인쇄되어 있는 일이 많다.<sup>44)</sup>
- 6) 조선에서는 세책가(貲冊家)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貸本屋’과 비슷한 것이 있으며 거기에는 대개 언문(諺文)으로 써어진 이야기책이 있다. 단지 조선인이 창작한 작품뿐만 아니라 『서유기(西遊記)』, 『수호전(水滸傳)』, 『서상기(西廂記)』 등 중국의 소설을 언문(諺文)으로 번역한 것도 많이 있다. 이러한 책을 빌리려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물건(남비, 솔 등도 可하다)을 세책가(貲冊家)에 가져가서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을 빌려온다. 그 책을 빌리는 요금은 한 권당 이삼 일의 기한으로 2~3리(厘) 정도이다. 세책가에서 빌려 주는 책은 시정에서 과는 것처럼 조악(粗惡)하지 않고 폭이 넓고 세로로 긴 종이에 선명하게 붓으로 써어 있으며, 열독(閻讀)하기도 대단히 편하다. 이 기회에 말하면 책사(冊舍)도 세책가(貲冊家)도 이 경성(京城)에만 있을 뿐이며, 그 이외에는 가령 평양(平壤), 송도(松都)와 같은 도시에도 세책가가 전혀 없다고 한다.<sup>45)</sup>

5)에서 보면, 서적의 공급을 상인뿐만 아니라 세책가에서도 상당수 감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서점의 책보다 세책가의 책들이 더 정성스럽고 좋은 종이 질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상인’이란 곧 보부상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책을 공급시키던 ‘서쾌’를 의미한다. 이것은 19세기 서적의 유통이 ‘서쾌’와 ‘세책가’, 그리고 ‘서점’을 통해 일반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중 세책가에서 취급하는 책의 질이 서점보다 좋았다는 사실은 많은 독자들이 보다 좋은 질의 책을 구하려는 욕구가 있었으며 이에 부응한 책들을 세책가에서 제공할 수 있었으므로 서점보다 세책가가 더 활기를 띠고 번성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44)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김수경 역,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조선문화사 서설』, 범장각, 1946, 6~7면.

45) 岡倉由三郎, 朝鮮の文學, 『哲學雜誌』(제8권 74·75호), 1893.4.5., 85면.

세책가나 서점은 경성 곳, 서울에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독자들은 더디어 서쾌를 통해 책을 구해 보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제한적 유통 구조 하에서 새롭게 선보인 방각본을 통해 비로소 대량으로 서울 이외 지역 독자들에게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까지 활동했던 서적 중개인으로서 한상윤과 송신용 등의 노인을 들 수 있다. 한상윤(韓相允)<sup>46)</sup>은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서적을 찾아내 판매를 하던 서적 중개인이었다. 1960년대 초에 이미 칠십 세가 넘은 것으로 보아 1890년 전후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가난하고 영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학식이 많았으며 고담박소(枯淡朴素)한 옷차림과 시골 선비와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sup>47)</sup> 어린 시절 최현배와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그는 서쾌가되어 전국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는 특히 불경 언해서 수집에 힘을 기울여 전국의 여러 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모은 서적들을 개인 장서가들에게 되팔곤 했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구입한 서적들을 직접 개인 장서가들을 찾아다니며 파는 방식을 취했다.<sup>48)</sup>

그런가 하면 송신용(宋申用)(1884~1962)<sup>49)</sup> 또한 1884년 9월 11일에 태어

46) 한상윤에 관한 일차적 자료는 김동욱이 쓴 「한상윤 노인(韓相允老人)」, 『도서(圖書)』(제 5호, 1963, 을유문화사, 90~94면)에서 참고했다.

47) 김동욱, 위의 글, 91면.

48) 김동욱, 앞의 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서적서화(書籍書畫)를 발굴해 서사(書肆)에도 팔고 학자에게 직접 거래하는 이들이 있다.”(90면) ; “그 뒤 그(=한상윤)는 내 직장에 찾아오고,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다.”(91면).

49) 송신용에 관한 일차적 자료는 김약슬(金約瑟)이 쓴 「송신용 노인(宋申用老人)」, 『도서(圖書)』(제 9호, 1965, 을유문화사, 53~62면)에서 참고했다. 이 글을 쓴 김약슬(1913~1971) 역시 서책 유통에 정통한 사람이자 장서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약슬은 본관이 김해, 호는 신암(薪菴)이며 황해도 은을 출생이다. 연희전문 상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로 1967년 모범장서가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가 수집한 기독교 관련 서적은 1968년 연세대학교에서 전시되었으며, 그의 장서는 고서 1,632종, 2,305책으로 사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되어 ‘신암문고’로 보존되었다. 장서 중에는 목판본을 위시하여 고활자본 · 필사본 · 서첩 등 귀중본이 다수 있다.

나 1962년 7월에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친 근대 마지막 서적 중개인 중 한 사람이었다. 아호(雅號)는 안관(安觀)이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서물동호회(書物同好會)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젊은 시절, 그는 비밀리에 죄남선의 소개장을 받아 상해 임시정부요인을 찾아간 적도 있었으나, 시력 문제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그 후 평생 서적과 함께 일생을 동락(同樂)하며 지냈다.

송신용은 한상윤이 전국을 다니며 서적판매를 한 것과 달리,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왕실가(王室家)나 관가(官家), 그리고 저자거리에 있는 가게 등을 드나들면서 내방가사나 소설류 등의 국학 자료들을 취급하던 위인이었다. 비록 잡다하긴 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학식이 있었던 서적 중개인이었다. 그는 해방 직후인 1947년에 영조 때의 화가 장한종(張漢宗)이 편찬한 한문 소화집인 『어수록(禦睡錄)』을 정음사에서 출간<sup>50)</sup>할 때 교열을 담당하고, 서문까지 썼다. 1949년에는 『한글』지에다 고소설 「조충의전(趙忠毅傳)」<sup>51)</sup>을 소개하고 교주본을 신기도 했다. 또한 그의 나이 65세 때 「한양가(漢陽歌)」를 주석(註釋)한 교주본(校註本)을 낸 일이나, 말년에 창덕궁가(昌德宮歌)를 교주한 것 등을 볼 때, 그의 박식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그는 돈만 아는 중개인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후배를 챙길 줄 알고 계몽(啓蒙)에 힘을 쏟았던 선각자였다. 그러기에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대인들에게 「한양가」와 같은 작품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명감에서 수고스럽게 현대어로 풀어 쓰는 작업을 행했다.

송신용은 1952년부터 1956년까지 4년 동안 중개된 서명과 가격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이를 통해 그가 취급한 서적의 종류와 가격을 자세히

50) 『어수록』은 장한종이 수원 감목관(監牧官)으로 재직 시(1812)에 지은 것이다. 잡을 쫓게 할 목적으로 야어고담(野語古談)과 자신이 경험한 일 중에서 권징(勸懲)이 될 만한 것만을 골라 쓰고, ‘열청재어수신화(閑淸齋禦睡新話)’라 했다. 주요 판본으로 1947년에 정음사에서 ‘조선고금소총 제1회배본’이라 하여 출간된 『어수록』과 1958년에 민속학자료간행회 편으로 출간된 유인본 『고금소총』에 실린 『어수신화』가 있다. 작품마다 4언의 제목이 붙어 있고, 무명 인물들의 일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는 매우 노골적인 음담패설도 담고 있다.

51) 작자 및 연대 미상의 1책 국문 필사본 고소설. 봉림대군과 조봉퇴라는 사람과의 인연을 다룬 작품으로, 뚜렷한 문제의식이 없고 우매한 사람도 행운을 얻으면 벼슬을 할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알 수 있다. 1952년 6월 12일에 전주판 『고본 춘향전(古本春香傳)』 1책을 만화(萬圖)에 사서 성동중학교 교사였던 김근수에게 팔았다는 기록으로부터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정진수에게 팔았으며, 궁체국문사본(宮體國文寫本)인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최남선에게 팔고, 『홍길동전』과 『악장가사』, 내방가사 등을 김영우(金榮雨)에게 팔고, 상촌(象村) 신흠의 아들인 신 익성(申翊聖)의 추후 발문이 들어간 『상촌집(象村集)』이 월탄 박종화(朴鍾和)에게 판매한 사실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문학류 외에도 다양한 서적을 취급하였는데, 그것을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송신용이야말로 조선 후기에 서울 지역에서 활동했던 서적 중개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세대였다는 점이다. 송신용과 같은 서적 중개인이 있었기에,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전적(典籍)들이 그나마 개인 장서가에게 공급되고 보존될 수 있었다. 돈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학식을 갖추고 당대 문인이나 지식인들에게 필요한 서적을 공급해 주던 중간자로서 그의 역할은 자못 크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중국에서도 서쾌와 같은 서적 중개인이 존재했다. 중국은 명대 후기 아래로 강남(江南) 지방에서 민간인쇄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고, 여기서 출판된 서적들이 북경의 거대한 서점가인 ‘유리창(琉璃廠)’으로 모여들었다.<sup>52)</sup> 이곳에서 공급하는 서적량의 절대적 증가는 국내의 활발한 서적 유통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주요 변수로도 작용했다. 중국에서는 조선의 ‘서쾌’와 같은 서적 중개상을 ‘서반(序班)’이라고 불렀다. 서리직(胥吏職)에 해당하는 서반은 인쇄업이 발달했던 중국 남쪽 지방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었다. 명·청대에 유명했던 서적상 중에는 항주 출신의 호문환(胡文煥)이나 소주(蘇州) 출신의 황비열(黃丕烈) 등이 있었다. 이들은 출판업자이자 서점주인인 동시에 장서가로도 유명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 초에 광주 지역에서 아편무역이 성행하면서 그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늘어났는데, 그 중 오병감(伍秉鑑, 1769~1843)이나 반십성(潘什成, 1832년 경 활동) 같은 행방상인(行

52)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활 공간』, 1999, 257면.

幫商人)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방대한 양의 장서를 획득하기도 했다.<sup>53)</sup> 그리고 조선 사신들이 서적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역관에게 맡기면 역관은 서반에게 의뢰하였다라는 기록도 보인다.<sup>54)</sup> 또한 이어(李漁)의 『여한자거서(與韓子籤書)』에는 청나라 초기에 '서선(書船)'이라는 배에다가 책을 싣고 각지에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sup>55)</sup> 이것은 당시에 서반이 배를 이용해 북경과 각지를 연결하는 서적 공급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行商本屋이라는 중개인이 있었다. 18세기 초에 강호(江戶)(東京), 경도(京都) 등의 도시뿐만 아니라 온천장에서도 세책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생겼는데, 이와 동시에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세책 행상인도 있었다.<sup>56)</sup> 이들 상인들은 대도시로 상경해 대도시에 집적되어 있던 서적들을 구해 지방으로 운반해 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일본의 사정은 한국의 세책집이 서울에만 모여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한국·중국·일본에서 서적 중개인의 역할은 세책업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서쾌는 주로 사대부를 대상으로 거래했으나, 세책업이 발달하고 대중 취향의 한글 방각본이 나타나면서 서민과 부녀자가 주 독자가 되고 세책(貴冊)이나 서사(書肆)와 같은 민간서적 유통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자 거래 대상과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세책업의 발달과 더불어 서적중개인의 활동이 활발해진 현상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록 이들이 문자해독이 가능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서적을 직접 구입, 판매하는 직업의 성격상 기본적인 문자해독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맹자 독자들의 독서 욕구를 채워 줄 방식의 하나로 강답사나 전기수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서쾌와 같은 서적 중개인 또한 필요할 경우 강답사의 역할까지 행했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 없다.

53) 벤저민 엘먼, 양희웅 역, 『성리학에서 고종학으로』, 예문서원, 2004, 321면.

54) 李宜顯, 燕行雜識, 『陶谷集』, 보경문화사, 1985, 683면 참조. '서반'이란 명칭은 연행록에 자주 보인다.

55) 大谷森繁, 朝鮮後期의 貴冊 再論, 이윤석·大谷森繁·정명기 편저, 『貴冊 古小說研究』, 혜안, 2003, 34면에서 재인용.

56) 위의 책, 24면.

## 2. 러시아의 오페나(ОФЕНЯ) 및 서양의 서적 중개인

서적 중개인의 활동이 현저하게 나타난 나라 중 하나가 제정 러시아였다. 원래 러시아 농촌에서는 전통적으로 ‘루보크 문학’ 또는 ‘루보크(ЛУБОК)’라는 문학양식 내지 소설 종류가 발달했다.<sup>57)</sup> 흔히 루보크(ЛУБОК) 소설이라 하면 싸구려 휴대용 소설을 일컫는 말이었다. 1880년대 후반까지 루보크 문학 출판업자들은 한 해에 1백만 권이나 되는, 값싼 책들을 출판하였다. 모두 32면 분량으로 된 이들 소설책은 밝고 화려하며 생동감 넘치는 걸표지(easel)에다가,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표제(表題)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루보크 작품들이 각 마을이나 시장에까지 공급되기 위해서는 ‘오페나(ОФЕНЯ)<sup>58)</sup>’라 불리는 거래상이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행한 도서매매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 오페나는 싸구려 책과 잡다한 물건들을 팔러 돌아다니던 상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오페나는 러시아 역사상 17~19세

57) 러시아의 일반서민은 일상적 의사교환매체로서의 종이를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동양처럼 오래 전부터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나무의 안 겹질을 사용했다. 백양목 또는 피질이 연한 수목의 내피(內皮)를 러시아어로 ‘루부’(Luo)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 글이나 그림을 기록하는 관례가 15세기경부터 있었다. 이것이 발전하여 완성된 것이 루보크 문학과 루보크 미술(특별히 판화)이다. 그러므로 루보크는 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17세기경부터 서민적 염원을 풍자하거나 전설을 기록하고, 더 나아가 항의를 표시하는 매개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루보크는 러시아의 실체였던 서민계층의 민중문학 또는 민중 판화(民衆版畫)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배계급을 풍자하고 서민적 애환의 횡적 연계로서의 속사정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루보크는 비천하고 서민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루보크는 세속적 요소를 지닌 표현 쪽이 발달하면서, 풍자적이고 사회적 금기를 조소하는 일종의 해학적인 서민예술로 은밀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의 의식 있는 지식인들은 여기서 일정한 영향을 받았으며, 민중의 의식 속에 잠재하는 진술하고 꾸밈없는 표현 형식을 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니콜라이 1세(19세기)시대로 들어 오면서 루보크는 준엄한 검열에 의해 제작을 받게 되며, 민중적 요소를 지닌 문학 세계는 점차 그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되었다.

58) 이하 ‘오페나’에 관한 내용은 주로 Jeffrey Brooks, ‘Readers and Reading at the End of the Tsarist Era’, *Literature and Society in imperial Russia, 1800~1914*,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78), pp.97~150를 참고했다.

기에 활동했던 행상인을 특별히 부르던 이름이었다. 이들 중에는 하인과 말 수레까지 거느린 부유한 오페니<sup>59)</sup>들도 있었다. 이들은 책뿐만 아니라 성상(聖像), 비누, 빗, 직물 등을 갖고 다니면서 팔기도 했다. 그러나 가난한 오페니들은 그와 정반대로 ‘크호텝쉬찌끼(Khodebshchiki)’라 불리던 행상인으로서, 물건들을 ‘바구니 안에 담아 갖고 다닌다’고 하여 ‘꼬로베이니까(korobyeiniki)<sup>60)</sup>’라고 불릴 정도로 직접 물건들을 운반하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술이 뛰어난 협잡꾼과 시골의 지식인들 사이에 꽤나 중요한 인물이었던 오페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팔고 돈을 받거나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어느 기록에 의하면, “무취끄(mužik, 제정 러시아의 농민-필자 주)가 소비할 빼과 돈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오페나가 항상 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비록 오페니들이 모두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종종 책 표지를 직접 보고서, 또는 그들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분야의 것을 선별하여 가져다가 팔았다. 오페니들은 외상으로 책을 구입한 뒤,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두, 세배를 받고 팔았다. 그들은 무지했지만, 거래하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채 넓은 세상을 여행하며 돌아다녔다. 농민들이 오페나를 좋아했던 이유도 발이 넓은 그들을 통해 읽고자 하는 여러 종류의 책을 비교적 쉽게 구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880~1890년대 농민들이 독서물을 선택하는 문제는 주로 오페니들이 책을 사던 모스크바에 있는 ‘니꼴스끼 거리(ulica Nikolskij)’의 출판업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문학작품들을 일명 ‘니콜스킬 거리 문학’이라고까지 불렸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루보크 문학은 출판업자와 지방 마을의 농민들에게 책을 공급해주는 유통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방에 공급되는 서적들은 모스크바에서 결정되었으며,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적의 종류와 범위 또한 중앙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59) ‘오페나’의 복수형.

60) ‘작은 상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길가에서 물건을 팔러 다니던 소상인을 뜻한다.

당시에 이들 출판업자나 오페니들이 주로 관심 갖던 책들은 보수적인 경향의 작품들이었다. ‘인내, 덕, 친절, 노동’, 또는 ‘죄를 피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종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는 농민 독자층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오페니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에 가장 잘 팔린 소설은 뿌쉬낀(Pushkin)의 작품이었다. 그의 작품은 30코페이까(kopyeika) 이상의 가격으로 50,000부나 팔렸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소설은 40,000부에 이르렀다. 그 만큼 독자의 수나 소설 유통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 러시아 전체 인구 중 21%가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잠재적 독자들의 2/3 이상이 법적으로 농민들이었다. 비록 도시가 문자 해독자들의 중심지라고 할지라도 도시의 문자 해독율은 지방의 2배에 불과했다. 그리고 문자를 읽고 쓸 줄 알았던 사람들 중 58% 이상이 10~29세의 연령층에 있었던 젊은이들이었다. 러시아 사회가 갖는 가부장적 특징 때문에 문자 해독층의 절대 다수가 남성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러시아 전체 문자해독자 중 2/3 이상이 젊은 남성들이었다. ‘자유학교’<sup>61)</sup>가 생겨나 학교교육이 확대되면서 문자 해독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그 혜택을 입은 이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남성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오페나에 의해 전국 각지로 유통된 소설과 문학서적의 독자들은 대부분이 남성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문소설의 주된 독자층 중 하나가 상층 여성이었던 한국의 사정과는 사뭇 다른 현상이었다.

한편, 농민독자들은 그들이 읽는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작가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느 뚜렷한 작가가 없는 성자전이나 민담의 경우처럼, 농민들은 새로운 문학작품들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sup>62)</sup> 작가가 누구인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설 『대위의 딸』을 즐겨 읽었던 농민들에게 그 작품을 누가 썼는지를 물었을 때, 그들은 작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설명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61) 1861년에 농노제가 폐지된 이후 농민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를 의미한다.

62) Jeffrey Brooks, 앞의 책, 136면.

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이렇듯 러시아 농민 독자들은 문학작품과 작가를 별개로 구별하여 생각했으며, 혹 작가에 관심을 가질 경우에는 그가 무엇을 썼느냐보다 그의 개인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러시아 독자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에 작자미상의 작품들이 많았던 사실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로 삼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고소설 작품의 대부분이 작자미상인 원인으로 주로 국문소설의 작자들이 이름 노출을 꺼리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 볼 때, 러시아의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독자 스스로 작가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었으며, 작가보다 작품의 내용에서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작품이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창작한 작가가 누구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책본의 경우, 작가 이외에 세책 주인이나 제 3자가 임의로 흥미 본위로 내용을 개작한 이본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한 작가의 원작 자체가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었을 수 있다. 이것은 구한말이나 1920년대까지만 해도 신소설 작가들과는 달리 구활자본 고소설의 작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널리 읽혔던 저간의 사정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 문자해독능력이 발달하고 농민들 사이에 책의 보급이 확대된 것은 러시아 내 대중의 대량 독서가 형성된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노동자 독자층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노동자들은 농민들보다 문자해독능력이 더 좋았다. 1897년, 러시아에서 운송·산업·무역에 종사하는 남녀 노동자들의 문자해독능력은 지방의 문자해독능력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노동자들은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교육기관과 더 쉽게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시대 노동자 독자와 농민 독자 사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노동자 독자들은 종교문학작품보다 세속적 작품을 더욱 선호했다는 점이다. 종교작품은 너무 부담스러워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무관심했다. 노동자 도서관에서 만든 보고서에 의하면 위의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예를 들어, 빼떼르부르그(St. Petersburg)의 뿌쉬낀

열람실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의 22%가 종교서적인데, 1888년에는 단지 전체 책의 2%에 불과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순수문학이나 통속소설에 대한 노동자들의 태도가 농민들의 태도와 달랐다는 점이다. 주로 종교적 작품을 읽은 농민들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모험소설의 열렬한 독자로서 책을 읽느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서술한 기록도 남아있다. 그들은 일종의 병적인 환희에 젖어 텁욕스럽고 활활한 기분으로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동자 독자들은 농민 독자들과 몇 가지 특성을 공유하기도 했다. 노동자 독자들이 농민독자들보다 더 폭넓게 독서하고, 사고 또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그들 또한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도덕률을 추구하였고, 작품 속의 허구적 인물들과 깊은 개인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높은 문자해독능력을 가진 채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차 사회가치를 분명히 드러내 말해주고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는 주된 수단으로 소설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더 낮은 대중 독서층의 저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농민들에 비해 인쇄매체를 도시 어느 곳에서나 접하기 쉬웠고, 농민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다양한 종류의 서적과 정기간행물을 구입할 기회가 많았고, 선술집이나 맥주 집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접하기 쉬웠다. 이러한 모습들은 러시아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의 노동자 독자층 사이에서 나타난 소설을 포함한 독서문화의 변화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출판된 책들이 농민들에게까지 깊숙이 전달될 수 있었던 데에는 러시아 사회가 활발한 서적 유통망과 함께 오페나의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한다면 러시아 주변 나라에서의 서적 중개인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폴란드에서는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18세기 후반에 도시민 또는 귀족들이 적계는 몇 권에서 수십 권에 이르는 책을 일반적으로 소장했다. 그 책이란 주로 종교서, 또는 일 년 농사 요령 및 파종, 수확 시기 등을 적어 놓은 달력과 농서, 의학서, 법률서, 고서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특별히 법률서나 역사서 등 특정 분야의 책만을 상당수 수집, 소장

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물론 이들이 수집한 책 중에는 고전 명작은 물론 당시 읽혀지던 문학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서자의 교양 정도와 취향에 따라 일부 귀족들은 별도의 서재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기 편한 여러 장비와 도구들을 갖춰 놓고 학문적 연구실로 쓰기도 했다. 한 예로 바르샤바의 다니워비չowska 거리(ulica Daniłowiczowska)에 위치한 대저택에 살던 자워스끼(Załuski)의 서재에는 1747년 당시 이미 십팔만(180,000)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sup>(63)</sup> 이것은 개인 서재라기보다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장서량을 자랑하는 도서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778년에 그곳을 찾았던 베르노우일리(Bernouilli)는 소장 도서가 이십만 권이 넘는다고 하면서 그 내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해 놓았다.

“가장 훌륭한 서재”라고 써 놓은 방에는 호화롭게 장식된 프랑스어 소장도서 및 각국에서 수집한 귀중한 도서들이 모여 있었다. 매우 길고 아름다우며, 화려한 장식에다 높은 천정을 자랑하는 서재는 자워스끼 형제들이 재배열을 업격히 금하던, 수많은 집인사람들의 동상들 사이에 있었다. (중략) 또 다른 방에도 책들이 수백 권 씩 꽂혀 있었다. 라틴어 책들만 모아 놓은 3층에도 내부 전체 가 책들로 빼빼이 진열되어 있는 커다란 방이 있었다. 그 방 옆으로도 계속 여러 개의 방안에는 온통 훌륭한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sup>(64)</sup>

마치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장서량과 집 전체의 규모가 개인 또는 한 집안이 수집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장서가들이 소장하

(63) Milk-Rudkowska N., *Historia Kultury Materiałnej Polski od połowy 17 w. do końca 18 wieku*, Wrocław : Ossolineum, 1978, s.384~385.

(64) 위의 책, 385면.

“Najznakomitsza sala - pisał on - a także jedyna ozdobna i przepyszna zawiera francuskie, a także i inne dzieła odróżniające się miedziorytami lub zewnętrzną pięknością. Sala ta dобра, wysoka i piękna, ozdobiona jest między innymi licznymi statuami, które godni bracia Załuscy kazali ustawić … i jeszcze drugi pokój, w których książki leżą stosami … kącików ksiązki na trzecim piętrze zajmują także wielką salę, której całej wnętrze zastawione jest książkami … obok kilka znowu dobrze zapelnionych książkami pokojów.”

고 있던 책들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공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장서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서적 중개인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폴란드어로 서적 중개인을 일컫는 말은 “크시옹스코노쉬(Książkonoszy)”로서 흔히 ‘서적 운반자’라고 번역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로, 책을 사고파는 서적상을 뜻하는 “크시옹쉬니짜(Książnica)”, 그리고 흔히 책을 파는 사람을 일컫는 “크시엥가쉬(Księgarz)”가 있다. 그런데 ‘크시옹스코노쉬’는 특별히 잡화류의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파는 보부상 같은 소상인을 일컫는 “크라마쉬(kramarz)”와 어느 기관 또는 주인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소작인 개념의 “파흐치아쉬(pachciarz)”를 합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서적을 주로 다루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팔고, 자립하지 못한 상인으로서 활동 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정작 이러한 서적 중개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인기도 별로 없었다. 책을 거래하던 크시옹스코노쉬는 주로 유태인들이었는데, 18세기 무렵부터 등장해 돈을 벌 목적으로 책을 사고팔았다. 18~19세기 에 책을 사려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으며, 그것도 주로 슬라흐탸(szlachta) 같은 영주, 또는 귀족들이 주 고객이었다. 지방 영주 및 귀족의 권력이 강한 반면, 왕의 권력이 미약한 나머지 인구분산이 이루어지고 문화현상이 수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책의 보급 역시 바르샤 바를 거점으로 전국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 지방마다 필요에 의해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므로 서적 중개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경우에는 서적 중개인의 역할이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리투아니아는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제정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이 시기에 러시아는 리투아니아어와 라틴 문자의 사용을 금하는 대신 끼릴 문자사용을 강요함으로써 국민성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19세기 초에 리투아니아에서 소설이 처음으로 등장했다.<sup>65)</sup>

65) 리투아니아에서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까지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과 작가들의 수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작가 계층

이 시기에 소설가 도넬라이티스(Donelaitis)가 쓴 작품은 50년 동안 필사본의 형태로 회람되다가 리투아니아에 처음으로 활자 인쇄가 등장하게 되자 곧바로 활자본으로 바꿔 출판되었다. 이것은 비로소 서적의 출판 및 유통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사회적으로 그 기능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작품들이 인쇄된 형태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매우 느렸고, 따라서 시대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미약했다.) 리투아니아 소설작품의 출판이 이후로 비로소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인쇄술의 발달이 소설의 발달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인쇄술 발달 이외에 리투아니아어 문학 발달에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은 바로 서적 중개인이었다. 러시아 차배하에 있던 19세기는 리투아니아어 사용이 금지되던 때였기에 리투아니아어로 된 책들과 정기 간행물들은 이웃 나라들에서 출판한 후 몰래 리투아니아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유통되었다. 그래서 인쇄된 책들을 몰래 운반해 오는 이들이 생겨났는데, 이렇듯 서적을 운반하던 사람들을 별도로 “크낙네셰아이(Knygnešiai)<sup>66)</sup>라고 불렀다. 이들 서적 운반자들은 특별히 프리시아의 코니스버그에서 리투아니아로 몰래 책을 운반해 왔다.<sup>67)</sup> 이들은 정부 관리에게 붙잡히면 심한 고문과 처벌을 받

의 지위나 신분이 예전에는 성직자가 중심이었으나, 그 시기에 농민 출신의 하급 평민들 중에서도 작가가 등장하게 되고 작품의 내용 또한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리투아니아 문학은 점차 세속화되어 세속성이 오히려 더욱 보편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다른 주제나 문학 갈래도 넓어지고, 유럽의 미적 기준에 더욱 가까워졌다. 사회생활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개인의 내면세계와 영혼을 다루기 위해 사사로이 개인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드물었던 시보다 산문이 더 많이 창작되기 시작했다. 리얼리티가 민족주의자들의 창작 방법론으로 재창조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낭만적 전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소설 작품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리투아니아에서는 종교문학에서 세속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성직자가 아닌 하층민 작가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인쇄기술이 보급되면서 시보다는 산문, 그 중에서도 소설 창작과 독서가 늘어나게 된 것이 19세기 초 이후에 비로소 나타난 문학사적인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66) 서적 운반자(Book Carrier)라는 뜻으로, ‘크낙네셰아이(Knygnešiai)’가 복수형, ‘크낙네시스(Knygnesys)’가 단수형이다.

67) Jerzy Ochmanski, (3rd ed.), *Historia Litwy*, Ossoliom, 1982, s.238.

았다. 그러나 1905년에 리투아니아어 사용 금지가 사라지자, 서적 운반인들은 그들의 공로를 인정받아 영웅 대접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sup>68)</sup>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콜포르퇴르(colporteur)’라고 불리는 행상인들이 책을 판매하는 일까지 했다.<sup>69)</sup> 책의 도시로 유명한 리옹에서는 이런 서적 중개인들을 별도로 “bisouard/bézoard”라고 부르기도 했다.<sup>70)</sup> 16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까지 활동한 그들은 출판사에서 책을 사다가 지방도시에 보급하고 판매까지 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 서적 중개상들이 새로운 종교 및 사상 보급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 번역판 성서나 종교적, 정치적 소책자 등이 바로 서적 중개상에 의해 비밀리에 유통될 수 있었기에 후대에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 등의 사회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물론 서적 중개를 하던 이들이 불합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서적 중개상들의 활동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sup>71)</sup>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프랑수아 라블레는 그의 글에서 “해독제 장수며 등집장수에 의해서 팔리는 『색채의 부(賦)』라는 시들한 책”<sup>72)</sup>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있다. 이것은 서적을 팔러 다니던 사람들이 원래는 해독제 장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파리를 제외하고, 도시와 농촌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책을 팔던 서적 중개인들은 커다란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상을 할 수

68) 현재 리투아니아를 여행하다 보면 등에 가방을 매고 있는 조각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조각상의 주인공이 바로 리투아니아 어와 민족 정체성을 살리도록 도와준 ‘서적 운반인’들이다.

69) Roger Chartier et Hans-Jürgen Lüsebrink dir., *Colportage lecture populaire, imprimés de large circulation en Europe 16~17e siècles*, Paris : É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1996 ;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208면.

70) 미야시타 시로, 오정환 역, 『책의 도시 리옹:잃어버린 책의 거리를 찾아서』, 한길사, 2004, 269면.

71) 도피네 지방 출신으로 파리에 많은 종교 서적을 운반해 들어가다 체포된 피에르 샤포라는 서적 중개상은 결국 혀를 잘리고 화형을 당했다.(위의 책, 272면 참조.)

72) 위의 책, 271면 ; 617~618면 주 12) 참조.

있었다. 왕권이 미치지 못하거나 약한 지방 도시일수록 이들의 활동 영역은 더 자유롭고 컸다.

한편, 17세기에 들어 프랑스에서는 출판업이 뚜렷한 진보를 이루했다. 이것은 당시 출판물의 주 고객이었던 교회와 신학을 대신해 점차 국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종교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 즉 역사서와 정치서가 활발히 나타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종교 서적의 독자가 기독교인으로 한정되었지만, 역사물과 정치적 논의에 관한 저서들은 프랑스 일반 대중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겼다. 특히 후자는 소책자 형태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싼 값에 많은 대중들이 구독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소책자에 대해 판매독점권을 가진 서적상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출판업 발달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sup>73)</sup> 이런 현상이 파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서적 중개상들은 소책자를 팔되, 저렴한 가격에 대중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을 위주로 판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 부피가 작아 이동이 간편한 데다 세련된 인쇄 기술과 제본술이 필요 없는 소책자는 일반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서적 중개상들이 급성장하게 되자, 파리 당국은 이들의 활동을 합법화시킴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이들에게 왕실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각종 공적 문서를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 이것은 당국이 대중과 출판물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서적 중개상들을 위험한 존재로 파악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특권이란 일부 서적 중개상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이었기에, 특권을 얻지 못한 다수의 서적 중개상들은 여전히 비밀리에 매매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구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서적 중개상들은 인기가 있을 만한 내용의 글을 삼류 문인들로부터 얻어내고 자신의 돈을 내어 인쇄를 의뢰,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소책자(livret)들은 당시 지식인 독자층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

73) 이영임, 빠리의 colporteur와 livret : 1598년~1645년, 『이화사학연구』 제17·18합집, 1988, 153~167면. 이 논문에서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서적 중개인의 활동상에 관해 자세한 소개를 해 놓았다.

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의사 전달 및 지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 준 매개물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책자들은 분량이 적기에 인쇄 시간이 단축되고 빠른 시간 내에 창작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데다 지식층보다 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쓰이고 판매되었다. 또한 이런 소책자의 저자들은 대부분 출판업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던 낫은 신분의 문인들이었다. 명예를 중시하는 저술가나 대문인과 달리 무명인 이들은 값싼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소책자들은 서점 을 찾는 전문 지식인이나 높은 교양을 갖춘 계층, 또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길거리에서 쉽게 팔릴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어야 했다.

이처럼 소책자를 통해 출판물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자, 덩달아 서적 중개상의 역할과 지위 또한 높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 소책자 판매를 허가받은 서적 중개상들이 부르조아와 하층민을 독자층으로 확보하고 값싸고 대중적인 소책자를 유통시킴으로써 출판물의 대중적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이후에 나타난 계몽주의 사상과 프랑스 혁명의 한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파리에서 서적 중개상을 통해 활발히 유통된 소책자들은 시·희곡 등의 문학작품과 문법 서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파리 생활을 다룬 글이나 정치적 논쟁의 글, 공식 문서 등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색채가 강한 글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개인들은 역사상 늘 사회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숨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8, 19세기 무렵,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서가들도 많이 등장하였다. 특히 18세기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는 개인 서재야말로 대를 이어 더욱 넓혀야 하는 가보(家寶)로 통할 정도로 많은 서적의 소장은 주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으로 인식되었다.<sup>74)</sup> 19세기만 해도 새 책은 매우 비쌌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책을 구해 읽는 독자 또한 자연히 돈 있는 사람 위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장서를 위해서 책을 훔치기까지 하지만, 그 행위는 그 책을 다른 누군가에게 팔지 않는 한 범죄가 아니라고 여겼다. 이러한 서양의 사회적 풍토 하에서 한국의 장서가들처럼

74) 알베르토 망구엘, 정명진 역, 『독서의 역사(A History fo Reading)』, 세종서적, 2000, 344~345면.

양반이나 귀족 중심으로 가문을 중시한 결과 장서를 즐기게 되었고 이것이 곧, 지적 수준, 또는 지적 이해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여겨지게까지 되었다. 이러한 장서가가 등장하고 유행처럼 번지게 된 배경에 서적 운반자들의 역할이 컸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듯 각 나라마다 사회적 여건 및 서적취급 의식이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서적 중개인이 있어 이들이 출판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유통의 일익을 감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IV. 서적 중개인과 소설 발달의 상관성

러너(Lerner D.)는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상업경제의 발달이 가속되고 새로운 상업자본가인 시민의 신분상승 욕구가 일련의 사회발전 내지 변동을 유발시키는 것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일반 대중의 문자 해독율을 높이고 교육인구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도시화(urbanization)와 문자 해독율(literacy)의 관계, 그리고 매체의 노출빈도 등의 자료를 주된 준거로 끌어왔다.<sup>75)</sup> 여기서 그의 주장 중 하나는 매체의 노출이 빈번할수록 문자 해독율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18세기에 양반신분의 사류(士流)나 사대부의 규수, 중인, 서출, 서리(胥吏) 등 평민들이 독서층으로 부상하게 되며,<sup>76)</sup> 이름도 없는 시민계급 인물들이 저작<sup>77)</sup> 행위를 하는 작가로 등장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도서수용의 폭을 넓혀 줄 수 있게 된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매체의 노출 빈도는 출판부수, 독서 횟수 및 환경 등과 연결된 것이며, 문자 해독율은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전자가 서적의 보급 및 이용 환경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독자층의 확대 또는 특정 문학갈래의 발전과 연결되는 문제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75) Lerner, D. Glence,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Illinois : Free press, 1958.

76) 구자균, 『조선평민문화사』, 문조사, 1948, 3~8면.

77) 조윤제, 『한국문학사』, 동국출판사, 1963, 307면.

전자가 소설의 유통 정도, 즉 서적이 어떤 경로로 독자들에게 폭넓게 전달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라면, 후자는 소설 유통의 결과, 소설이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문제로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서적 중개인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서적 중개인이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 제공자 역할을 했으며(매체의 노출 빈도), 그 결과 더 많은 독자들이 소설을 읽거나 듣는 가운데 소설이 인기를 더해갔으며 문맹률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데(문자 해독율)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서적 중개인과 같은 전문가들이 없었다면, 출판업이 발달하고 산문정신이 활성화하고 독자층이 저변화되는 식의 사회적 변화 상황에서 소설의 발달이 일시적인 유행에 머물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물류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당시에 대도시( 수도 )를 제외한 다른 지역까지 소설 및 서적이 원활하게 공급됨으로써 동시대의 정신문화를 전국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서적 중개인과 같은 존재가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전국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서적 운반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조선시대에 공적인 서적 유통은 반사(頒賜)제도<sup>78)</sup>에 의해 이루어졌다.<sup>79)</sup> 그 결과 지방 관리나 주요부서, 조신(朝臣)들에게 관찬서가 보급되었고, 지방 인력까지 활용해 향교나 벽지까지 서적 운반을 지시하기도 했다.<sup>80)</sup> 임란 후에는 지방마다 부족한 서적 사정을 반영이라도 하듯 각지에서 서적 공급을 요청했을 때 국가적으로 보급정책에 상당한 힘을 기울였다. 또한 중국을 다니던 사신에게 돈을 주어 적극적으로 구입케 하는 한편, 때때로 역관에게 몰래 들여오게 시키기도 했는데, 이것은 엄연히 공식적인 루트에 의해 서적 공급 및 중개가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정부적 활동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서적 공급 및 중개가 이루어진 것이 세책업자와

78) 반사(頒賜)란 중앙이나 지방 관청에서 서적을 활자, 또는 목판으로 간행한 다음, 왕명으로 승정원의 승지 또는 규장각의 각신이 특정 문신(文臣)이나 관원, 관서(官署) · 사고(史庫) · 향교 · 서원 등에 보급시키던 유통방법을 말한다.

79) 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혜안, 1997, 93면.

80) 『世宗實錄』 卷七十, 十七年 十月 癸酉條.

서적 중개인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책업과 서적 중개인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모리스 꾸랑, 岡倉由三郎, 최남선, 박종화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 세책집은 모두 서울에만 있었다. 이는 일본(東京, 京都 등)이나 러시아(모스크바, 뼈페르부르그 등)에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책업이 융성했던 것과 다른 점이다. 이렇듯 세책집이 서울에만 있었다는 사실은 소설 유통 면에서 볼 때, 세책 소설의 소비자로서 지방의 독자들까지 고려할 때 중간 윤반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大谷森繁은 방물장수를 상정한 바 있거니와,<sup>81)</sup>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유통망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서적 판매 및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반경 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체계와 조직,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서쾌와 같은 직업인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청말(清末)에 와서야 세책업이 융성하게 되었는데,<sup>82)</sup> 그 이전에도 서반(序班)과 같은 서적 중개인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세책업과 서적 중개인의 융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세책업이 각 나라마다 발달하기 이전부터 서적 중개인들이 있어 세책업과 서점을 대신했다고 할 수 있다. 서적 중개인은 목판본(또는 활자본)뿐만 아니라 필사본까지도 취급했던 것이다.

문헌 자료만을 놓고 볼 때, 서쾌는 주로 사대부 집을 다니며 책을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당시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민 또는 서민들이 많지 않았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도 서민층까지 확대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풀이된다. 그러나 서쾌가 사대부를 위해 존재했던 중개인은 아니었으며, 책을 요구하는 지방의 사대부나 중인, 신흥 시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책을 공급해 주었다.

반면 러시아의 오페나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지방의 귀족뿐만 아니라 시민

81) 大谷森繁, 李朝小説の 覚書(一), 『朝鮮學報』 45輯, 日本 : 朝鮮學會, 1967, 62~63  
면.

82) 大谷森繁, 朝鮮後期의 貢冊 再論, 이윤석 · 大谷森繁 · 정명기 편저, 『貢冊 古小說  
研究』, 혜안, 2003, 34면, 38면.

과 농민들에게까지 직접 책을 가지고 가서 팔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러시아에서 문자를 깨우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어학 교재가 인쇄되어 팔렸다. 그리하여 하층민 사이에서 글을 배우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소설 또한 발달하게 되어 소설을 읽으면서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sup>83)</sup> 인쇄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문자 해독자가 늘어나고, 문자를 깨친 이들이 늘어나면서 소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문자 해독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싸구려 소설인 루보크 소설이 “상인이나 서기, 하급관리, 도시에 사는 농장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sup>84)</sup> 그렇기 때문에 오페나가 19세기에 러시아 전역을 다니며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소설을 가지고 가 팔 수 있었다. 이는 오페나의 소설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승효과를 일으켜 보다 더 많은 하층민 사이에서 문자를 깨치고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페나와 같은 서적 중개인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자 해독율과 매체의 노출 빈도를 높여주게 되었고 소설 발달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서적 중개인들이 존재하면서 그들이 유사한 역할을 감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독자 및 출판업자를 연결하는 중간자로서 소설 및 서적 유통 발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나오며

서적의 유통과 독자의 서적 구입은 시대적, 사회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달해 왔다. 특히 소설이 인기 있는 문학갈래로서 자리 잡게 된 데는 인쇄술 및 출판업의 발달, 상업적 영리추구, 서민독자의 등장뿐만 아니

83)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203면.

84) David Gasperetti, *The Rise of the Russian Novel, Stylization, and Mockery of the West*, DeKalb : North Illinois Univ. Press, 1996, p.54.

라 유통 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서적 중개인’들의 활동 및 역할에 초점을 맞춰 본 논의를 전개했다. 이는 최근에 학계에서 세책 고소설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서적 중개인’이라는 전문가 내지 문학담당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연구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서쾌’나 러시아의 ‘오페나’, 중국의 ‘서반(序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유럽 나라의 서적중개인에 대해 소개하고 서적의 출판, 유통과 소설독서의 발달 사이에 이들 존재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인쇄술의 발달과 세책 판매의 유행,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 작가의 등장, 서민대중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독자층의 형성, 산문정신의 발흥 등 사회적 변화에 일익을 담당했던 문학담당총으로서 서적 중개인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일차적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성과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풀어야 할 더 많은 과제들을 남겨 놓고 있다. 다룰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 발굴 또는 다른 나라와의 대비연구를 통해 후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단상을 적어보고자 본다.

첫째, 한국의 서쾌, 러시아의 오페나 등 당시 서적중개인들이 어떤 신분 계층의 사람들과 거래를 했으며, 그 양상과 성격이 어떠했는지 더욱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서쾌는 상층 계급(사대부)을 상대로 주로 거래했고, 오페나는 서민들과 부녀자까지 폭넓게 접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 이를 어떤 이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적 중개인들의 역할 및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밝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서쾌가 존재했던 사실을 기록한, 이를 시기의 문헌은 임란 전에 써 어진 유희춘의 『미암일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쾌는 언제까지 활동했는가? 세책업의 쇠퇴와 근대식 출판 및 판매망의 형성이 서쾌의 최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적용시켜 서적 중개인의 등장과 최후가 어떤 문학적, 소설 사회학적 맥락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찾

아낼 때 소설의 성장, 발달 매카니즘과 연결시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쾌의 성격과 관련해, 과연 서쾌가 세책가를 운영하면서 중개인 역할까지 했는가? 아니면 세책가와 서쾌는 별개로 영업하던 인물이었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본고에서는 서쾌가 책을 운반하던 중개인 노릇만을 담당한 인물로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쾌가 세책가와 완전히 구분된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서쾌 중 자본을 갖춘 이들이 세책업까지 겸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적 중개인의 정체성 및 사회적 인식, 계층과 신분 등에 대해 보다 더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자료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서적 중개인을 몇 가지 사례로서 가져와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비교적 사례가 풍부하다고 판단된 러시아의 경우를 예로 가져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일부 살펴보았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러시아 외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프랑스의 예를 일부 가져왔을 뿐, 서유럽의 사례까지 풍부히 다루지 못했다. 동양에서는 한국 외에 중국, 일본의 예를 가져왔지만, 역시 중국과 일본의 경우 더욱 많은 자료의 확보와 균등한 대비 작업이 필요하다. 자료가 풍부하고 취급 가능한 나라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다룬다 보니 논의의 불균형과 비교 자료의 적절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적 중개인의 역할과 소설 발달의 상관성에 관한 보편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균등히 가져와 대비하는 가운데 일반론을 도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최종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이자 진행형의 연구 물이다. 후속 연구를 약속하며 다른 연구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明宗實錄』卷十一，六月 五日 甲寅條。
- 『世宗實錄』卷七十，十七年 十月 癸酉條。
- 『英祖實錄』卷三十三，五月 二十六日 丙寅條。
-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성장 공간』, 1999, 257면.
- 岡倉由三郎, 朝鮮の文學, 『哲學雑誌』(제8권 74·75호), 1893.4.5., 85면.
- 구자균, 『조선평민문화사』, 문조사, 1948, 3~8면.
- 김동욱, 한상윤 노인, 『도서(圖書)』 제5호, 을유문화사, 1963.
- \_\_\_\_\_,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11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70, 101면.
- \_\_\_\_\_, 이조소설의 작자와 독자에 대하여, 『장암지현영선생 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71.
- 김약슬, 송신용 노인, 『도서』 제9호, 을유문화사, 1965.
- 大谷森繁, 李朝小説の 覚書(一), 『朝鮮學報』 45輯, 日本 : 朝鮮學會, 1967, 62~63면.
- \_\_\_\_\_, 朝鮮後期의 貢冊再論, 이윤석·大谷森繁·정명기 편저, 『貢冊 古小說研究』, 혜안, 2003.
- \_\_\_\_\_, 고소설 독자층의 변천사,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1894(번역본 일조각)
- 미야시타 시로, 오정환 역, 『책의 도시 리옹: 잊어버린 책의 거리를 찾아서』, 한길사, 2004.
- 박상근, 개화기 책거간고(冊居間放)-도서유통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2집, 국학연 구소, 1997.
- 박제가, 홍희유·강석준 역, 古董書畫, 『북학의』, 여강출판사, 1991, 122면.
- 백운관·부길만, 『한국출판문화변천사』(도서유통의 성립과 발전), 타래, 1992, 72면.
- 벤저민 엘먼, 양휘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
- 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혜안, 1997.
- 안춘근, 『한국서지의 전개과정』, 범우사, 1994, 79면.

- 알베르토 망구엘, 정명진 역, 『독서의 역사(A History of Reading)』, 세종서적, 2000, 344~345면.
- 柳本藝, 『漢京識略』 卷二, 市塵條.
-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민음사, 1997.
- 유춘동, 조선후기 세책의 현황과 유통 연구(1)-필사본 세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고전문학연구 제87차 월례발표회, 2000년 9월 30일.
- 유희준, 정창권 풀어 씀, 『흘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眉巖日記 : 1567~1577)』, 사계절, 2003, 97~98면.
- 이서구, 책방세시기(冊房歲時記), 『新東亞』 40, 1968년 5월호.
- 이영임, 빠리의 colporteur와 livret: 1598년~1645년, 『이화사학연구』 제17 · 18합집, 1988.
- 李裕元, 喜看稗說, 『林下筆記』,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1, 682면.
- 李宜顯, 燕行雜識, 『陶谷集』, 보경문화사, 1985, 683면.
-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중연, 『책의 운명: 조선-일본 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세종서적, 2000.
- 이토 세이, 고재석 역, 『近代日本人의 발상형식』, 소화출판사, 1996, 69~70면.
- 장한종, 송신용 교열, 『어수록』, 정음사, 1947.
- 전상욱, 세책본 고소설 연구의 성과와 반성, 연세대학교 무악고소설연구회 월례발표회, 2000년 8월.
- 정명기, 세책본 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한국고소설학회 제53차 학술대회, 2001년 5월 19일.
- 鄭尙驥, 李翼成 譯, 廣書籍, 『農圃問答』, 한길사, 1992, 162~163면.
- 정약용, 曹神仙傳, 『국역 다산시문집』 7, 민족문화추진회, 1985, 279~280면.
- 정양완, 『일본 동양문고본 고전소설 해제』, 국학자료원, 1994.
- 정형우, 朝鮮時代의 書肆制度, 『朝鮮時代 書誌史 研究』, 한국연구원, 1983, 214~246면.
-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해』, 지식산업사, 1977.
- \_\_\_\_\_,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 조윤제, 『한국문학사』, 동국출판사, 1963, 307면.
- \_\_\_\_\_, 고서왕래(古書往來), 『현대문학』 3월호~9월호, 1963.
- 趙熙龍, 曹神仙傳, 『壺山外記』 : 『閨巷文學叢書』 9, 驪江出版社, 1991, 60면.

-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3.
- 中村幸彦, 近代の讀者, 『中之圖圖書館概要』 vol. 9., 1973, 81~82면.
- 『中文大辭典』 4, 中華學術院 刊, 1973.
- David Gasperetti, *The Rise of the Russian Novel, Stylization, and Mockery of the West*, DeKelb : North Illinois Univ. Press, 1996, p.54.
- Jeffrey Brooks, 'Readers and Reading at the End of the Tsarist Era', *Literature and Society in imperial Russia, 1800~1914*,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78, pp.97~150.
- Jerzy Ochmanski, (3rd ed.), *Historia Litwy*, Ossolium, 1982, s.238.
- Lerner D. Glence,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Illinois : Free press, 1958.
- Milk-Rudkowska N., *Historia Kultury Materialnej Polski od połowy 17 w. do końca 18 wieku*, Wrocław : Ossolineum, 1978, s.384~385.
- Roger Chartier et Hans-Jürgen Lüsebrink dir., *Colportage lecture populaire, imprimés de large circulation en Europe 16~17e siècles*, Paris : É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1996.